

# 강풍추위 광주·전남 '꽂꽂'

## 한파 내일까지... 항공기·선박 결항 교통불편

### 비닐하우스 등 폭설피해 잇따라

광주와 전남지역에 내린 '소환'(小寒) 폭설은 그쳤지만, 강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져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해 출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7일 "광주와 전남지역에 내린 대설주의보는 이날 새벽 3시30분께 해제됐지만,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크게 떨어지는 강추위가 예상된다"면서 "8일 출근길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출근길 주의를 당부했다.

소환인 6일 오후부터 7일까지 내린 눈은 순천이 12.1cm로 광주·전남에서 가장 많았으며, ▲광주 5.5cm ▲장흥 6.6cm ▲고흥 4.1cm ▲목포 3.5cm ▲진도 1.2cm 등이다.

주말과 휴일 광주와 전남지역에는 대설·폭랑·강풍경보가 동시에 발효되면서 항공·선박 등이 모두 결항돼 지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항공·여객선 결항 잇따라=지난

6일 전남 서남해안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 49개 항로 70여 척의 여객선 운항이 강풍으로 인해 모두 발이 묶였다. 광주공항에서 출·도착 예정이었던 14편의 항공기도 모두 결항했다.

항공기 운항은 7일 대설주의보 등이 해제되면서 재개됐으며, 목포항에서도 3개 항로 5척의 선박이 닻을 올렸다.

◇폭설·강풍 피해=광양시 진월면 월길지구 농가 21곳의 비닐하우스 52동(1만400여 평)이 7일 전·반파돼 1억2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중 2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1개 동

은 완전히 파손됐고, 4개 동(800평)은 주저앉거나 피복이 벗겨지는 등 반 이상 파손됐다. 이외 47개 동(9천400평)은 비닐이 대부분 벗겨졌다. 광양시는 비닐하우스 파손으로 동해를 입은 양상추밭 1만400평은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눈길 교통사고=지난 6일 오후 7시22분께 곡성군 곡성읍 월봉리 도림사(道林寺) 입구 다리에서 투싼(운전자 박모·39) 승용차가 3m 높이의 다리 아래로 떨어졌다. 차량에는 운전자 박씨를 포함해 일가족 5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머리·팔·다리 등에 가벼운 상처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에서는 6일 하루만 14건의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 2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무등산장도로 '눈...눈...' 대설주의보 속에 무등산 산장도로. 산장도로는 지난 6일 오후 8시30분부터 7일 오전 7시20분까지 통제되는 등 한밤중과 새벽엔 결빙으로 인해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강추위 9일까지=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8일까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3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이다. 눈이 그치고 나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떨어진다. 8일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전남은 곡성 영하 5도, 구례·순천·함평·무안·고흥·해남·장흥 영하 4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추위가 9일 오후부터 서서히 풀려, 예년기온(아침 최저 영하 2~3도, 낮 최고 5~6도)을 회복할 전망"이라며 "그러나 아침 기온은 오는 14일까지 영하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한미 FTA저지 광주·전남운동본부' 등 회원들이 지난 6일 오후 광주시청 앞 미관광장에 폐가전제품 등을 아적하며 현물 납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시청 앞 현물납부 투쟁

### '反 FTA' 단체, 광주시 손배 철회 촉구

광주시가 불법 한미 FTA 반대 집회를 벌인 시위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 FTA 반대 단체가 시청사 앞에서 2차 현물납부 투쟁을 벌였다.

'한미 FTA저지 광주·전남운동본부'(공동대표 허연·이하 운동본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김덕중·이하 농민회) 등은 지난 6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촉구했다.

운동본부 등은 기자회견 직후 1t 트럭 3대와 승합차에 싣고 온 폐지·종

이박스·캐비닛·컴퓨터 모니터 등을 시청 앞 미관광장에 쌓으며 1시간여 가량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와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큰 마찰은 없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1월22일 운동본부 등의 폭력시위로 인해 청사 유리창이 부서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2억1천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4일 시위 참가자 6명의 건물과 토지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 공단 사장실 금고털이 현금 등 6억여원 훔쳐

광주 관성경찰은 7일 공단 내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금고를 부수고 현금 등을 훔친 배모(53·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새벽 3시께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T산업 사장실에 침입해 철제금고를 부순 뒤, 안에 있던 현금과 수표 등을 가져가는 등 2회에 걸쳐 6억1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배씨는 훔친 수표를 강원랜드 카지노계임장에서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임주형기자 jhlhm@



광동선도저지 중심투쟁을 우리는 3.6.36 최대연결!  
 (한미FTA 저지운동본부 주최)  
 수련선도시 피오리  
 문의전화: 062-367-9000

'인생수업' 외국 작가 사진 베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검사 한승철)는 7일 캐나다 사진 작가인 그레고리 존 리처드 콜버트씨의 작품과 흡사한 삽화 10점을 책 표지와 속지 등에 그려 넣어 '인생수업'을 발간한 이태 출판사 대표 고모(43)씨를 불구속 기소.

○고씨 등은 콜버트씨의 작품과 아주 유사하게 제작된 2차 저작물인 삽화 10점을 사용해 지난해 6월부터 15만여 부를 발행해 판매한 혐의.

○검찰은 이 출판사가 콜버트씨 측과 수차례 접촉해 승낙을 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하자 프랑스에 거주하는 미술작가에게 200만원을 주고 콜버트씨의 작품과 대상 및 구도, 명암, 색채 등이 유사한 삽화를 제작하도록 했다고 설명.

○'인생수업'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제자 데이비드 케슬러가 죽은 직전의 사람들을 인터뷰해 삶에서 꼭 배워야 할 것들을 정리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7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

/연합뉴스

## 수능부정 10명중 3명 수험생 신고로 '들통'

2007학년도 수능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자 10명 가운데 3명이 동료 수험생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치러진 2007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폰·디지털 카메라·MP3·전자사전·카메라렌즈·전자계산기 등 시험장 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했다 45명이 적발돼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이들 가운데 14명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휴대폰 등 반입 금지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다른 수험

생의 신고로 적발됐고, 13명은 시험시간 도중에 옷이나 가방 속에 넣어둔 휴대폰 벨이 울려 들통났으며, 12명은 감독관에 의해 부정물품 소지 사실이 발견됐다.

나머지 6명은 휴대폰이나 MP3 소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자진 신고한 경우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해 동안 수능부정 유형을 수시로 홍보한 결과 수험생과 감독관이 시험장 준수 규정을 충분히 숙지했고 이 덕택에 감시가 잘 이뤄져 부정행위 적발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과거에는 시험장 반입물품이 감독관의 눈에만 띄지 않으면 좀처럼 적발되지 않았으나 이젠 동료 수험생들이 부정 행위를 눈감지 않고 주저 없이 신고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경미한 부정행위라도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르면 중대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되고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휴대폰·MP3 소지 등 경미한 부정행위라도 적발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연합뉴스

### 엔틱식탁 & 중세유화 직수입전

The 14th. Made In Italy

14th. 중세풍 디자인의 엔틱식탁과 중세풍의 중세유화 직수입전입니다.  
 14th. 중세풍 디자인의 엔틱식탁과 중세풍의 중세유화 직수입전입니다.  
 14th. 중세풍 디자인의 엔틱식탁과 중세풍의 중세유화 직수입전입니다.

광주광역시 중구 삼동로서리 1 구도현동 14th. 중세풍 디자인의 엔틱식탁과 중세풍의 중세유화 직수입전입니다. 06212226-7565

### ANTIQUE FURNITURE GAEDING

### 14th. 중세풍 디자인의 엔틱식탁과 중세풍의 중세유화 직수입전

SALE

14th. 중세풍 디자인의 엔틱식탁과 중세풍의 중세유화 직수입전입니다.  
 14th. 중세풍 디자인의 엔틱식탁과 중세풍의 중세유화 직수입전입니다.  
 14th. 중세풍 디자인의 엔틱식탁과 중세풍의 중세유화 직수입전입니다.

14th. 중세풍 디자인의 엔틱식탁과 중세풍의 중세유화 직수입전입니다. 0621955-8820